

40주년 이후 5·18 전국·세계화 더 필요하다

광주·서울서 각종 학술토론회 “미래 젊은세대의 기억이 중요 오월정신 확장 새 접근법 시급”

5월 향쟁이 발발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는 또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각종 학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5·18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영향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전국화·세계화에 주력하자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8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법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원과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조선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연대 노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김재형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사무국장과 차성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5·18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연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두 향쟁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국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연대방안’을 주제 발표한 이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연대방안으로 대학과 민주화운동단체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에 앞서 2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5·18 40년 이후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도 40주년 이후 5·18의 전국화·세계화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이 자리에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18 역사 공동체, 전국화 및 세계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

해 “40주년 이후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5·18기억보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의 5·18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5·18 전국화와 세계화는 야만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과 인간 안보에의 요청이며, 생존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응답이고, 국가의 재구성을 지향한다”며 “5·18 전국·세계화의 원천은 ‘5월 문화예술운동의 상상력’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40주년 이후 5·18은 문화적 과제를 풀어나가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5·18의 기억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5·18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지훈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5·18의 역사적 박제화와 지역적 고립과 문제는 미래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5·18은 그동안 국가적 행사로 거듭나고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돼 공적인 영역이나 담론의 장에서는 왜곡과 폄훼가 완화되고 전국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일상적인 영역이나 즉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에서는 5·18은 무심하거나 왜곡·폄훼 그리고 지역 차별적 발언까지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영역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국가적 공식행사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교육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장기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하거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형식으로 5·18을 이해하고 설득시켜, 그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5월 정신의 확장이라고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프라임사업 사후관리 평가 ‘A’등급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 성과

호남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프라임)사업 사후관리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호남대학교 프라임사업은 ▲사회 수요를 반영한 혁신 교육과정 모델을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AI/SW 등 특화된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의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라임사업은 2016년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호남대가 선정돼 지난해 2월까지 3년 동안 130억원을 지원받아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 혁신 교육

체계 수립, 교육환경 개선 등을 수행했다. 사업의 사후 관리의 사업 종료 후 5년간 프라임사업의 주요 성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속될 예정이다. 프라임사업은 교육부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유용민 프라임사업 추진실장은 “프라임 사업을 통해 구축한 혁신 교육체계 및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프라임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과확산을 통해 AI(인공지능)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평생교육관 열람실 내달 1일부터 감염 경보 단계 따라 제한 개방

칸막이 등 방역소독 강화

전남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관 등의 열람실을 6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염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심각 단계일 경우 열람실 전체 좌석 중 30%, 경계 단계일 경우 50%의 인원을 허용하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 물품 비치, 이용자 출입관리, 열람실 내 간격 유지(1-2m), 칸막이 설치 등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방역 소독 강화 등 조치를 한 뒤 개방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도서관 등에 ‘코로나

19’ 예방 수칙 교육과 안내에 관한 지침을 내려 개방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6월 초부터 2주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은 6월 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참여자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분반, 시차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윤명식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각 단계에도 단계별로 제한적 운영을 하기로 했다”며 “학생들과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대, 한국연구재단 13개 연구과제 선정

학술·인문사회·과학 기술 분야 약학과 보건의료 3개 과제 따내

목포대학교가 5월 중 수시 발표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 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에서 13개 과제를 따냈다.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 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고 대학의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와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목포대는 ▲인문사회 신진연구 2과제(금융보험학과 이상남 교수, 영어영문학과 이광순 강사) ▲지적대학 우수과학자 3과제(환경공학과 배민석 교수,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성진택 교수, 전자정보통신학과 전희석 교수) ▲이공 기본연구 8과제 등을 합쳐 1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 결과 중 약학과에서 3개 과제가 선정, 목포대가 보건·의료 분야에 수준 높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노사민정화합 한마당 28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2020 노동절 기념 및 노사민정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참가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어 노사민정의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월 18일을 세계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유엔 청원

오월단체들 서명운동 돌입
오월단체들이 ‘5월18일’을 ‘세계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지정해줄 것을 유엔에 청원한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제네바 IBJ는 40주년 부활절을 기해 이 같은 제언을 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해당 성명서는 한

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됐다. 오월 단체들은 4개 국어로 된 제언 성명서를 통해 “5월 18일은 1980년 열흘간의 민주화항쟁이 시작된 날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민중은 5·18학살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물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항

행하고 있는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한 민중 탄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세계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을 지지하는 개인·단체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공유된 링크(구글폼)를 찾아 서명하면 된다. 단체들은 서명 운동과 함께 국내 및 국제 웨비나 개최, 각 분야 저명 인사와 2개국 이상 정부의 지지 선언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마트민방위 교육 광주 북구 코로나 대응 1만 6700명 내달부터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민방위교육을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실시한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1만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6월 1일-7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까지이고 북구 소속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참여는 인터넷포털이나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20개 과목과 지진, 풍수해, 화재 등 생활안전에 관한 기본상식으로 구성된 1시간 분량의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하면 교육이 완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1인 가구이거나 주소지 장기 부재로 민방위 교육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대원들을 위해 스마트민방위 통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증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